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공공기관 유치·특례 발굴 '투트랙'

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유치위 출범... 정치권·학계 등 범도민 협력체계 구축
특별자치도 2026 특례발굴추진단도 가동... 농생명·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내실화를 위한 특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유치 위원회' 출범과 '2026년 특례사업발굴추진단' 구성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 경제계, 학계, 도민사회가 함께 하는 범도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단은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 국장을 단장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야, 총 2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피지컬 AI,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특례화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국정과제 및 14개 시·군 핵심 사업과 연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 중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재선별하고, 유사 과제는 '패키지형 특례'로 통합 설계해 정책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도는 오는 5월까지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 재검토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협의 및 입법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월부

터는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목표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성장 기반 확보와 차별화된 특례 발굴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도민과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 유치라는 외부 성장 동력과 특례 발굴이라는 내부 혁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평가되며, 전북이 자립형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힘 모아

정장선(아랫줄 가운데 오른쪽) 전북체육회장과 8개 재외한인체육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공사, 작년 순이익 132억원... 설립 이후 최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해 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8년차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설립 후 처음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100억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을 추진해 61억원의 분양수익을 포함 매출 149억원을 창출한 것이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남원·고창' 선정

남원 대산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청년·창업농 정착 기반 마련
고창 폐건축물 정비... 공공주차장·임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남원시와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총 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최대 5년간 추진되며,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남원 110억원, 고창 4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오염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된 공간을 생활시설이나 쉼터 등으로 재생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원시 대산면 수덕·금성지구는 '특화지구형'으로 선정돼 농촌융복합 산업과 정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덕지구에는 가공·체험·교육·창업 기능을 갖춘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금성지구에는 폐공장·폐창고 등을 정비해 체류형 공간과 힐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과 창업 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 대산면 사계지구는 '일반형·정비형'으로 방치된 폐교와 폐축사,

폐건물 등을 철거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철거 부지에는 공공주차장과 농업인 쉼터를 조성하고, 폐교 부지는 향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 유입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본격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북이 농촌 재생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연고 프로야구 11구단 창단 추진

민주 이원택 의원, "도민 자존심 되찾을 것" 프로야구 경기 위해 '돔구장 건설' 제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30일 전북도의회에서 프로야구 11구단 창단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 이상 전북 도민들이 타 지역 팀을 응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11구단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팀 창단이 아니라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범 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잃어버린 전북을 다시 찾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합 돔구장'도 전북의 미래 전략 핵심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문화와 공원을 위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야구와 공원, 전차, 국제행사가 결합된 365일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프로야구 11구단 창단과 복합 돔구장 건설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고 일상과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을 연고로 한 쌍방을 프로야구단 해체와 KCC 농구단 이적 이후 전북도민들이 겪어온 상실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다"며 "이제 그 공백을 반드시 채우고 도민의 가슴을 다시 뛰도록 프로야구단 창단 유치와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도민들은 '우리 팀'을 잃은 채 타 지역을 바라봐야 했다"며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고 함께 환호하던 일상이 사라진 현실은 전북의 문화와 경제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전북형 프로야구 11구단 창단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그는 "전북 기업이 투자하고 전북이 기반을 만들고 도민이 키워가는 진짜 우리 팀을 만들겠다"며 /권희성기자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